

이긴자 일대기【18】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로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요,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이며 네 번째는 야곱의 장자 단입니다. 이렇게 땅의 4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3수가 되는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 그리고 아담 이긴자로 채워짐으로써,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해진 7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로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늘의 3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되신 영모님께서 예배시간이 되어 단상에 서게 되면 무릎을 꿇고 앉아 예배에 임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한번 쪽 훑어보는 동시에 첫 일성(一聲)으로 “바라보시라요!”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관에 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배시간 때마다 ‘바라보시라요’라고 외치는 영모님의 첫마디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지 하나의 상투적인 어조사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영모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는 원리

그런데 전도관의 수많은 교인들 중에 유독 일곱째 천사는 그 ‘바라보시라요’라는 말씀을 예사롭게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영모님이 안찰할 때에 배가 아파서 펄펄 뛰는 교인에게 “주님을 바라보시라요, 주님을 바라보시라요.”라고 연거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곱째 천사는 생각하기를, ‘영모님이 단에 서기만 하면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시고는 안찰할 때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니, 이는 영모님 당신

이 곧 주님이라는 뜻이로구나!’하고 이렇게 단번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영모님께서 설교시간에 “악신이 들린 미친 사람을 바라보면 그 미친 사람 속에 있는 악신의 오염을 받아 심령이 더러워진다.”고 하면서 그러니 악신이 들린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고 엄중히 주의를 당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일곱째 천사는 즉각 반사적으로 생각하기를, “옳지,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영모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겠구나!”하고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알고 보면 영생하는 생명과일을 따먹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1단계의 영의 싸움은 참는 단계부터

1단계의 영의 싸움은 참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마음의 싸움에서 이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때, 처음에는 모든 일에 참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대로 표현하면 이미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

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 저지르는 죄인의 습성이지, 죄의 탈을 벗고자 무던히 애를 쓰면서 영의 싸움이 치열한 자는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한테도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대로 불쑥불쑥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런 일을 당해도 참고 저런 일을 당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영의 싸움에서는 단계가 있기에, 처음에는 참는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참을 수 있는 단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곱째 천사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게끔 유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영모님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교인들에게 안찰을 해주셨는데, 일곱째 천사의 차례가 되어 일곱째 천사는 자리에 누워 영모님의 안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영모님은 혼잣말로 “이제 안찰 안 받아도 되는데...”라고 나직이 중얼거리면서 옆에서 있는 장정들에게 고개로 끌어내라는 시늉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곱째 천사는 영모님의 안찰을 받지 못하고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소사 신앙공동체마을의 교인들은 그때부터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을 마귀로 취급하고 상대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은 ‘영모님이 안찰을 해주지 않는 것을 보아 틀림없이 마귀새끼가 분명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속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일곱째 천사가 예배에 참석



하려고 오만제단에 올라가면 안내원들이 ‘마귀가 왔다’고 하면서 못 들어가게 끌어내어 내동댕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끌어냄을 당하는 그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울화통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꿀꺽꿀꺽 참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이길 수가 없나이다. 이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꿀꺽꿀꺽 참는 단계를 수년간 거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는 1단계를 거쳐 올라가니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참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율율법 상에는 참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려는 생각조차 일어나려야 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야 그것이 완전히 이기는 단계에 해당되지, 감정이 이미 나

가지고 그걸 참으려는 단계는 이미 넘어진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싸움에서는 처음에는 참는 단계를 거쳐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참는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중 뛰어서 변화가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 참는 단계를 통과하는 데 십여 년 이상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어떤 억울한 일에도 입에다 재갈을 물고 참고 참았던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참고 ‘내가 왜 이런 섭섭한 일을 당하느냐?’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죄인 과수이니 마땅히 이런 섭섭한 일을 당

해도 싸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면서 참고 넘어가니 그 입술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참아야 하는 단계를 지나니 그다음에는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울화통이 터질 일을 당해도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당신께서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로 바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단계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단계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노화 현상 (老化現象)

The Aging Phenomenon

1.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

Our blood changes according to the way we think.

2.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되며, 마귀의 마음을 품는 순간 마귀가 되는 것이다.

The moment we embrace the heart of God, we become divine. But the moment we harbor the heart of evil, we become what is evil.

3.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Greed causes our blood to rot.

4. 욕심부리는 사람으로부터는 독소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Those who are greedy release toxic substances from their bodies, while those who hold the heart of God radiate life-giving energy.

5.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수명을 다하면 죽는다.

The cells in our bodies have a natural lifespan—they eventually die.

6. 죽은 세포는 분비물을 통해 빠져나가고, 부족한 만큼의 세포가 새로 조성된다. Dead cells are discharged through secretions, and new cells are formed to replace what is lost.

7. 새로 조성되는 세포는 피로써 조성되는데, 단 썩은 피로써는 세포 조성이 안 된다. These new cells are formed through the blood—but not with impure, rotten blood.

8. 썩은 피로써는 세포 조성이 안 되므로, 썩은 피가 많을수록 몸 전체의 세포는 부족해진다. When the blood is impure, the body struggles to regenerate cells. The more rotten the blood, the fewer healthy cells the body can produce.

9. 이것이 바로 노화 현상(老化現象)이다.

This is the true nature of aging.

10. 욕심의 횡수가 많을수록 피는 자꾸 더러워지는 것이다.

The more often we give in to greed, the more our blood becomes contaminated.*

‘나’라고 하는 상태를 잊어버린 단계가 곧 4단계

주님을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면 다시 1단계로 떨어진다

2단계의 과정에서는 이런 일을 봐도 감사, 저런 일을 봐도 감사,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봐도 감사하고 저런 일을 봐도 감사하기에 온 몸과 마음과 그 전체를 하나님께 기울여 바치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일관성 있는 생활로 돌입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이나 잡념이 일어나려야 할 수 없는, 초초로 주님만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고, 어쩌다가 내 주님을 잊어버리면 애걸복걸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기에 다른 생각이 일곱째 천사의 마음에 점령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곧 마귀와 간음하는 것이요, 다른 생각 곧 잡념이 마귀 지체라는 엄청난 사실을 유사 이래 그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되는 잡념이 일곱째 천사의 마음에 점령되어 들어오려야 올 수 없었던 것은, 시간 시간 고도로 사모하며 일초 일초 내 주님을 찾으며 일초 일초 주님과 더불어 속삭이면서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일곱째 천사는 어쩌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범죄를 저질렀다가 되기에 한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단계가 3단계

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의 과정에 있더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되면, 다시 1단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 입에다 재갈을 물고 어떤 감정이 나와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꿀꺽 참는 단계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억만 분의 일 초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단계가 4단계

4단계는 일초 일초 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초초로 바라보는 3단계로부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주님을 억만 분의 일 초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 얼굴이 두 눈에 박혀 있기에 눈만 뜨면 내 주님이요,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이것을 생각하나 저것을 생각하나 항상 내 주님만 생각하게 되므로, 이렇게 억만 분의 일 초라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이 단계가 완전히 4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 영의 싸움은 1, 2, 3, 4단계 순서로 올라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 주님을 잊어버리고도 찾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단계, 이것이 1학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데 언제 마귀가 채어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2단계 정도는 올라가야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지 1단계에서는 어느 때 마귀 밥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권에 들어가야 최소한도 구원권에 섰다가 되며, ‘자율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라는 말씀에 응하는 단계입니다. 자율율법을 지킬 수 있는 3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귀를 죽일 수 있고 은혜를 간직할 수 있으며 ‘나’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이 생각나려야 할 수 없고 ‘나’라는 것이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선상에 올라가야 겨우 3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 온전히 ‘나’라고 하는 상태를 잊어버린 단계요, 완전히 ‘나’라는 것이 없는 단계 그런즉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여길 보나 저길 보나 내 주님만 보이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거한 단계가 곧 4단계였던 것입니다.

4단계의 경지에 들어가면 마음과 몸 둘 다 고자가 돼

4단계에 접어들은 일곱째 천사는 육적으로도 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욕이 일어날 정도는 항상 지옥권에서 허덕이는 자인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흐르며, 하나님의 영은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마귀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보다 늦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자를 일컬어 곧 ‘이긴자’라고 하며 이 이긴자의 영은 마귀 영보다 수억천만 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고로 마귀를 때려잡는 것은 식은



이긴자의 연단을 받은 밀실

죽 먹기인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즉각 즉각 분별하여 포착하지 못하면 그 마귀를 못 때려잡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어느 층의 단계에 이르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밀실에 들어가서 이긴자의 연단을 받고 천신만고 끝에 10단계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 10단계의 고지에 이른 일곱째 천사에게 ‘완성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일곱째 천사는 늙되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정하면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육천 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다시 회복한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단계가 곧 10단계였던 것입니다.*